

3·1 운동 100주년 '청소년 독립 선언서' 만들기

전주근영중, 한일공동 평화수업 개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전주근영중학교(교장 윤희경)에서는 특별한 수업이 열렸다.

근영중 조은경 수석교사가 지난 2005년부터 진행해온 한일공동 평화수업이 올해는 '2019 대한민국 청소년 독립 선언서 만들기'를 주제로 28~29일 진행된 것.

특히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자 안중근 의사 서거 100주기를 맞아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독립에 대한 수업을 실천하고자 했다.

이날 학생들은 3·1운동의 의미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과정 및 의의를 살펴보고, 오늘의 대한민국의 주체·주인으로서 진정한 독립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었다.

또 독립선언문의 주요 문장을 직접 낭독하며, 그 속에 담긴 평등·평화에 대한 염원과 독립의 간절함을 느껴보는 시간도 가졌다.

조 수석교사는 "독립선언문에는 자주독립, 평화, 평등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다"면서 "당시의 절절했던 독립의 소망, 지혜와 헌신으로 나라는 지킨 분들의 숭고함을 기억하는 뜻깊은 수업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공동수업에 참여한 스키즈 히토시 전 요코하마 시립중학교 교사 "안중근 기념사업회"의 일본측 위원으로 평소 안중근 의사를 널리는 데 앞장섰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전주근영중학교에서 특별한 수업이 열렸다.

매년 안중근 추모식에 참석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28일 서울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린 안중근 의사 순국 109주기 추모식에서 안중근의사승모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스즈키 선생은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보면서 굉장한 큰 감동과 놀라움을 느꼈다"면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히로부미를 저격한 것은 개

인이 아닌 제국주의에 대한 의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수업을 들은 3학년 1반 이창훈 군은 "3·1운동과 독립선언문에 대해 배울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면서 "3·1운동이란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 수 있는 이유"라는 의미를 보았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히로부미를 저격한 것은 개

예수병원, 고객감동실현 서비스 정신 강화

예수병원(병원장 권창영)은 최근 환자중심 병원문화 정착과 고객감동실현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서비스 정신과 역량을 강화'하고자 CS 선포식을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전직원들이 참석해 열린 행사는 "친절 및 환경개선위원회(위원장 신동규 기획조정실장) 주관으로 2019년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한 번 더 설명하기, 한 번 더 미소 짓기, 한 번 더 돌아보기'라는 CS 슬로건을 선포했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김제시보건소, 저염맛간장 만들기 조리실습 실시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영양사를 포함한 전문 인력이 그룹-홈을 직접 순회 방문하여 저염맛간장 만들기 조리실습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오는 4월 2일 신풍동 장수 그룹-홈을 시작으로 4월 29일 성덕면 다복 그룹-홈까지 총 15개소 200여명의 그룹-홈 입소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故 임종구 계장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성금 1천만원 기탁

군산지역 발전을 위해 일하다 지난 1월 유명을 달리한 회현면故 임종구 산업계장의 유가족이 지난 27일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 성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

회현면에 따르면 유가족은 고인의 장례에 도움을 준 시 공무원과 회현면 직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회현면 사무소에 성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유가족은 "장례에 도움을 주신 많은 직원에게 감사드리고 고인과 유족의 의미가 깊은 성금이 지역인재 육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탁을 뜻을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북농협·전주농협, 임직원 참석 새봄맞이 가두 캠페인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은 28일 전주농협 인근에서 유재도 본부장, 홍종기 전주완주시군지부장, 임인규 전주농협 조합장 등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 봄맞이 가두 캠페인을 했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새봄을 맞아 도민과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전북 관내 농·축협이 동시 했으며, 출근길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예방 황사마스크 2000여 개, 상품 안내장 등을 나눠 주며 고객들에게 봄맞이 인사를 건넸다. /김영태 기자

익산 대표기업 하림, 토종닭 왕 20톤 봉 20톤 기탁

익산의 대표기업인 (주)하림(대표이사 박길연)이 28일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를 찾아 토종닭 왕 20톤 (1억 2천만 원 상당)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토종닭은 하림에서 생산·가공된 식품으로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를 통해 지역의저소득가구 및 200여개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될 예정이다. 박길연 대표는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하림은 지역 사회를 위해 꾸준히 나눔 활동을 지속하여 더 많은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승원 복지국장은 "매년 후원해 주시는 (주)하림에 감사드립니다"며 "기탁해주신 닭고기는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부안수협, 송광복 조합장 취임... 공식행보 시작

부안수협 송광복 조합장이 28일 부안수협 4층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개최하고 제18대 부안수협 조합장으로서 공식행보를 시작했다.

취임식에는 전) 김진태 조합장, 권익현 부안군수, 군산수협 김중남조합장, 고창군수협 김충 조합장, 부안군 한국수산업협회 박일회회장, 수협중앙회 관계자 및 조합원 등 참석했다.

취임사에서 조합원과 어업인들의 수준만큼 부안수협의 존립도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한시도 잊지 않고 조합원님과 어업인들의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인식되는 현실과 맞지 않는 수협의 제반 기본법규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여 반드시 관철시키며,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무한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조합장이 먼저 변화를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합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수협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제나 가슴을 열어 놓고 조합원의 어려움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여 새기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기 기자

알림

▲전주농협 제10대 임인규 조합장 취임식 및 2018년도 결산 운영공개= 일시: 3월 29일(금) 오후 2시, 장소: 전주 시온성교회(구 전북도교육청)

남원의용소방대연합회, 짜장면 봉사 위문

남원소방서 남원의용소방대연합회는 28일 육군 제7733부대에 방문해 연대 및 대대 병력 300여명에게 짜장면 봉사를 통해 위문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용주 남원소방서장, 강선호 연합회장의 35개 대장, 제7733부대 3대대장 및 부대원 270여명이 참석했다.

연합회는 지난해 8월 7733부대 3대대와 지매결연을 체결하고 군부대와 상호 협조하는 등으로 지역주민의 안전 및 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경찰 도동지구대, 자율방범대 야간합동 범죄예방

남원경찰서(서장 최홍범) 도동지구대(대장 이동권)는 28일 오후 9시부터 2시간 동안 도동자율방범대(대장 정철)와 함께 범죄예방과 주민들의 체감치안 확보를 위한 야간 합동 근무를 실시했다.



이날 활동에서는 도동동 유흥업소 밀집지역과 원룸촌을 비롯해 공원, 놀이터 등 야간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순찰을 하면서 청소년 비행 및 범죄예방활동을 진행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